

第十五回
秋史金正喜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 受賞作品展

축사김정희선생축모전국서예백일장 수상작품전



主 催

禮山文化院 / 秋史金正喜先生紀念事業會

後援 文化觀光部

忠清南道

禮山郡

韓國文化藝術振興院



서울展示會

開會式：2004年 11月 12日(금)오후 2시

期 間：2004年 11月 12日 ~ 11月 15日

場 所：서울국제디자인프라자 2층 3,4 전시실

禮山展示會

開會式：2004年 11月 23日(화)오전 11시

期 間：2004年 11月 23日 ~ 11月 25日

場 所：예산문화원 3층 전시실

발간사



우리 예산 문화원에서는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와 함께 1990년부터 선생께서 태어나시고 학예를 갖고 닦으신 예향의 고장인 예산군 신안면의 유서 깊은 추사고택에서 전국 회화대회를 시행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의 제15회 대회에 참가하여 예선과 본선의 2차 심사를 거친 후 본선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수상작품 전시회를 갖게 된 작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록은 올해까지 장원 14, 차상 42, 차하 90점의 작품을 비롯하여 특선 290, 입선 1057점의 수상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전국 서예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예산이 낳은 세계적인 대 서예가요 학자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추사 선생께서는 24세에 생부의 중국행 사신행차를 따라 청나라의 연경에 갔던 일이 계기가 되어 당시 연경 학계에서 금석, 서도의 제일인자로 손꼽히던 「용방강」의 제자로 입문해서 그의 서체를 배우는 동안 역대 중국 서가의 모든 전통서법을 충실하게 익힌 다음 스스로 독창적인 한 길을 터득하여 넓으로써 초탈한 법식을 갖춘 추사체를 창안하였으며, 박제가의 가르침으로 대성하고 금석학에도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추사선생의 서예정신과 학문의 세계를 후세에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국 서예 백일장을 매년 개최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사 서예 백일장의 체질 개선을 통하여 한 단계 높아진 국제적인 서예백일장으로 격상시켜야겠습니다.

끝으로 수상작가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 드리고 도록 발간과 전시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11월 12일

예산문화원장 이진자

대 회 사



尊敬하는 內外 貴賓 여러분,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추사선생의 체취가 서려있는 유서 깊은 선생의 출생지인 예산까지 왕림하시어 秋史 先生 追慕 全國 書藝 白日場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豫選을 거쳐 본선 書藝 白日場에 參加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시 한번 祝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라는 본 기념사업회와 예산문화원이 공동으로 주회를 하여 어느덧 열다섯 해의 星霜을 이어온 뜻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白日場을 통하여 秋史 金正喜先生님의 藝術魂과 學德을 追慕하고, 더 나아가서 先生의 偉大하고 깊은 書藝精神을 繼承發展시키며, 우리나라 書藝界의 新人 發掘과 育成의 契機로 삼아 보자는 소박하고 아주 작은 뜻이 담겨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동양화가이자 미술사학자인 金瑬俊 선생의 글에 의하면 '추사의 글씨는 따로이 한 경지를 갖추어서, 우는 듯 웃는 듯, 춤추는 듯 성낸 듯, 세찬 듯 부드러운 듯, 천변만화의 조화가 숨어 있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위대한 글씨' 라고 稱頌을 하였으며, 한 인간의 위대함이 不運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면 추사 선생은 필경 위대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秋史先生의 學藝의 인연에서, 특히 書藝家로서의 位相은 韓國이나 東洋의 文化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世界史的 次元의 文化史 및 美術史에서도 가장 높고 빛나는 星座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秋史선생은 實事求是의 實學을 主唱한 碩學으로서 중국의 清朝 學界를 주름잡던 翁方綱 선생이나 阮元 선생 등이 '海東 第一의 學人' 이라 찬탄을 금치 못한 선생의 폭넓은 儒家의 經典과 佛教에 심취, 초의선사도 경탄해 마지않았고, 선생의 시대로서는 班家에서 금치 시 되었던 西學에까지 심취를 하실 수 있었던 思想的 自由에 우리는 깊이 유념하여, 본 기념사업회에서는 先生의 학문세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研究活動을 떠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秋史體를 연구하고 先生의 學問的 業績을 재조명하는 일이란 한 개인의 힘만으로 될 性質의 것이 아니며, 여기 모인 先生을 欽慕하는 우리 모두의 힘을 結束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욕적인 秋史紀念事業을 통한 後進 養成과 支援 등을 위하여 秋史金正喜先生紀念事業會에서는 書藝界 元老와 中堅의 뜻을 모아 '秋史基金.'을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중이오니 이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行事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支援하여 주신 文化觀光部 政務次長 長官님을 비롯하여, 忠淸南道 巡按使 知事님, 韓國文化藝術振興院 現기영 院長님 그리고 박종순 龜山郡守님께 깊은感謝를드립니다.

특히 먼길을 멀다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직접 찾아 후진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書藝界 元老先生님들과 審査委員님들, 그리고 훌륭한 公演과 演奏를 맡아주실 龜山의 문화단체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현장에서 行事실무를 주관하여 주시는 龜山文化院 院長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勞働에 대하여 衷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白日場이 여러가지 不便한 條件이지만 白日場 參加者 여러분들께서 좋은 作品을 呈出함을 통하여 個人의 成熟과 書藝界 발전의 큰 획이 되기를 期待하면서 여러분의 幸運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2004년 10월 10일

秋史金正喜先生紀念事業會 會長 申斗淳

심사평



秋史 金正喜선생은 조선후기의 서화가며 문인, 금석학자 이기도합니다. 선생은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서예의 各體를 섭렵하시고 본인(秋史)體를 남기셔서, 우리 후대들은 선생의 偉大한 書藝精神을 繼承發展키 위한 전국규모의 서예백일장을 開催함이 열다섯번째가 되었으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으며, 入賞者 여러분께도 祝賀를 드립니다.

이번 출품자는 豫選을 거쳐 현장취호대회에 參加하였으니 전원 入賞者와도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간혹 정획이 빠진(興자등)글씨와 몇획을 省略한 작품, 上位에 올랐던 작품중 謄字를 謄字로 써서 탈락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작품제작에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落款까지 신경을 써야 하건만 도장(印章)을 빠뜨린(한문2, 문인화1점) 작품도 있어 조금 감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대회에 參與하여 남의 작품과 比較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懸位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來年에는 꼭 남보다 나은 작품을 내고야 말겠다는 오기도 가져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백일장이야말로 字典을 찾아가며 各體의 作品을 열심히 제작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으며, 작품들의 다양성과 向上된 수준을 보면 앞날이 밝다 하겠으며, 우리나라 書藝는 앞으로 더욱 빛을 發하리라 믿어 집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書藝發展을 위하여 이런 좋은 기회와 運籌의 妙를 만들어 주신 예산군수님, 예산문화원장님,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장님을 비롯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無窮한 發展을 빕니다.

2004년 10월 10일

심사위원장 金兌洙

漢文命題 (擇一)

幽松若高士 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 無懼而無悲

夏山新霽雨 無溪不清漪
百疊翡翠堆 峯巔與澗涯

한글명제 (택일)

그윽한 소나무는 고상한 선비와 같고
회구름은 기이한 자태를 내네
나는 이제 진념을 끊고자 하니
즐거움도 없고 또 슬픔도 없네

여름산에 비가 말쑥히 개니
비단물결 맑지 않은 시내는 없네
첩첩이 또개진 저 비취빛 무더긴
유달리 시냇가나 뒤편의 이마에

文人畫題(擇一)

梅(매)

이그림은 수명이 오백 세가 갈 만하니
이매화보노라면 응당 다시 신선되리
此畫可壽五百歲
看到此梅應復仙

蘭(난)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 자라도
향기는 멀리까지 더욱 맑고 기이하네
蘭生幽谷裡
香遠益清奇

菊(국)

나무에는 서늘 바람 극화에는 하얀 서리
발에 가득 가을 영자 담담한 시방(詩坊)일래
木正西風菊正霜
一簾秋影澹詩坊

竹(죽)

맑은 꿈 알맞아라 대숲을 이웃하고
깊은 정은 구슬가지 준다한들 아까우라
淸夢政須隣竹樹
幽情不惜贈瓊枝

水蓮(수련)

연꽃은 우뚝히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 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음을 사랑한다
愛蓮之亭亭淨植可遠觀而不可
褻翫焉

其他(기타)

눈은 푸른 산 빛에 취하고
귀는 맑은 시내 물소리 즐거워라
眼酣靑岫色
耳樂碧溪聲



한복희

여름 상에 비가 많으니 개나리 나무를 잘 보지
 양을 시어는 없네 청초이 푸개 진저리 청초
 푸더 긴 유달리 시냇가 나뭇잎의 이삭에
 국화 향이 구름에 향신 가을은 추아 정성의 시를 쓰라 글씨 정성여

전상애

幽松若高士 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 無懼而無悲

錄秋史先生詩 梅園金允我

김윤아

次下

여름산에리가말스히개니비난을절망치
않은시내능없네침침이조개진저미취미
우더길옥갈리시벗가나외의이마에

추사김창희선생축오사예백일에서연경장인선

장인선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後二日又耕全成姬

전성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日德山金元植

김윤식

구구한 구구한 구구한 천비와 같은 흰구름은 기
이한 자 해를 내세우는 이 제 진영을 꿈고 차하
를 지우고 있는 또 슬픈 노인이 있어 화

황윤순



이명호



차화순

말을 듣고는 밤에 이르러서는
말을 듣고는 밤에 이르러서는
말을 듣고는 밤에 이르러서는
말을 듣고는 밤에 이르러서는

特選

『후음별가나다』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忠岡金貞順

김정순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之節 朴田金永允

김영운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錄秋史先生與黃山東籬諸公賞瀑東嶺中一首
甲申年日露溪白岡金沐弘奉書

김수홍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多秋史先生詩石遺金建錫

김진석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小峰姜泰訓

강태훈

幽采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中甲仲秋之節 隱山李英子

이미자

夏山新霽雨無溪不
清漪百疊翡翠堆峯
顛與澗涯

仁齋李光烈

이광열

幽松密高士白雲媚
奇髯美態斷塵念無懼
顛與澗涯

甲申仲秋之節
書卷朴相植

박상철

疊山新霽雨無溪不
清漪百疊翡翠堆峯
顛與澗涯

甲申仲秋之節
書卷朴商駿

박상준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後二日 弦堂金鎮招

김진철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錄秋史先生詩一首 誠軒秋教泰 題

추교태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常波崔良順 題

최양순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錄阮堂先生詩甲申金清軒崔錫鳳 題

최석봉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後二日時苑朱氏錫 題

주민호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無怡全燦萬 題

전찬만

여름산에비가말쑥히개니비단줄걸을말지
 앓은시니는없네침침이로개진취비취빛
 푸더기우날리시벚가나외의이마에

가남신은가을크사천성시를쓰라쳐왔어정정하네

윤경숙

여름산에비가말쑥히개니비단줄걸을말지
 앓은시니는없네침침이로개진취비취빛
 푸더기우날리시벚가나외의이마에

가남신은가을크사천성시를쓰라쳐왔어정정하네

신순자

여름산에비가말쑥히개니비단줄걸을말지

가남신은가을크사천성시를쓰라쳐왔어정정하네

류연옥

여름산에비가말쑥히개니비단줄걸을말지
 앓은시니는없네침침이로개진취비취빛
 푸더기우날리시벚가나외의이마에

가남신은가을크사천성시를쓰라쳐왔어정정하네

김남숙

여름산에비가말쑥히개니비단줄걸을말지
 앓은시니는없네침침이로개진취비취빛
 푸더기우날리시벚가나외의이마에

구기순

여름산에비가말쑥히개니비단물결말
지않은시내는없네침침이포개진저
취빛무더기유달리시냇가모의이마에

예산추사고택회호장에서호원이승려 三

이순례

여름산에비가말쑥히개니비단물결마리지않
은시내는없네침침이포개진저취빛무더
기유달리시냇가모의이마에

추사선생시풍에서가려진다 소현화영애 四

황영애



김종진



박순덕



윤양숙

清夢玫瑰隔竹幽情不惜贈瓊枝 文淳 一 四



이정주



정미선



최명규



최수현

入選

〔후문별가나다순〕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 梧園金敬姬 書

金敬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 昔齋金京順 書

金敬遜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節 義齋吳敬子 書

金敬子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 良林姜希到 書

姜希到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孟秋錄 茅田姜錫姬 書

姜錫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奇姿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硯額金英玉

김영옥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後二日瓦村金東經

김동경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歲在甲申仲秋六降序考金南六

김남육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前一第金基柏

김기백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思江金南六

김경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霧谷金慧洙

김혜수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節阮山金赫洙

김철수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重秋二節德廉金長玩

김장완

夏山新霽雨無溪不清漪
百疊翡翠堆峯顛與澗涯

鐵鉉史先生詩一首甲申秋金允洙

김윤숙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雪岩金泳煥

김영환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懽而無悲

甲申秋日景川朴龍子

박용자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懽而無悲

甲申仲秋節興山朴容根

박용근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懽而無悲

甲申年秋日文谷朴鮮錫

박선호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懽而無悲

甲申秋日松原柳玉順

류옥순

夏山新霽雨無溪不清漪
百疊翡翠堆峯顛與澗涯

甲申仲秋節亭壘南潤尚

남윤상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後二日外衍沈孝林

심효림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二日沈觀沈玉京

심옥경

夏山新霽雨無溪不清漪
百疊翡翠堆峯顛與澗涯

甲申仲秋二日沈觀沈玉京

서정진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節維初朴貞備

박정수

夏山新霽雨無溪不清漪
百疊翡翠堆峯顛與澗涯

甲申秋史白日楊南湖朴貞坤

박정곤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節孝先生尹玉文

윤옥설

夏山新霽雨無溪不清漪
百疊翡翠堆峯顛與澗涯

歸秋史先生詩甲申秋日瑞峴尹敏題

윤민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錄阮堂先生詩松澗尹錦心

윤금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歸秋史先生詩芝園神潤子

유윤자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未隱吳錦賢

오석현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慧媛李美敬

이미경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荷秋節 柏若李 朱翼

이래익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清秋節 少衍李多英

이다영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節 竹庭李官鎬

이관호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寒露後二日 衍菴李京恩

이경은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青谷李龍泰

이용진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六泮雨川李堯建

이요규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新李英旭

이영욱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錄秋史先生詩雜訂李聖子

이성자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新松林李美熙

이미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茅軒李源根

이원근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三日以後觀李鍾文

이종문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次先生詩一首於墨井書

임희숙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茅軒張命根

장윤정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歸次先生詩看散齋教洪

정경숙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蘭谷車來信

차래신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八醉南庭陳永信

진영신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淨林趙星和

조성화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暉亭鄭瑛善

정영선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八醉南庭陳永信

정선화

夏山新霽雨無溪不清漪
百疊翡翠堆峯顛與澗涯

甲申仲秋六階藝園韓美敦

한미경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日賢音表淳子

표순자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節晚石崔燦熙

최찬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 寒露節月高崔俊謨

최준모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歸秋史先生詩贈仁菴松花

채송화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錄水玄黃甫姬

황남희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秋錄秋史詩芸亭洪恩忠

홍은혜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仲秋佳節於秋史先生逸茶全圖書堂
白日瑞揮毫大會席上景軒洪玉男

홍옥남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菊秋佳節尤淨許連淵

허연숙

幽松若高士白雲媚奇姿
我欲斷塵念無懼而無悲

甲申寒露節書秋史先生詩松云韓成求

한성구

그윽한 초승달은 그 상한 설미와 같고 흰 구름은
은기가 한 잔 태운 술 내내 나는 이 제 진념을 끊을 차
하니 스물 세 살은 이 밤은 또 술을 끊은 이 밤에
이월의 달은 추사 김홍도의 선생은 또 백의로 장 생애의 일을 깨달

이일재

여름산에 비가 말스니 희게나 비 내리는 것을 만히
지 않은 시내는 언덕에 흰뚝이 또 개진쳐 비쳐
빛스니 더 긴 우나를 리 시냇가 구외의 이마에

손영일

여름산에 비가 말스니 희게나 비 내리는 것을 만히
지 않은 시내는 언덕에 흰뚝이 또 개진쳐 비
취 빛스니 더 긴 우나를 리 시냇가 구외의 이마에

박미옥

여름산에 비가 말스니 희게나 비 내리는 것을 만히
지 않은 시내는 언덕에 흰뚝이 또 개진쳐 비

김신희

그윽한 초승달은 그 상한 설미와 같고 흰 구름은 기이
한 자태를 내내 나는 이 제 진념을 끊을 차 하니 스물
세 살은 이 밤은 또 술을 끊은 이 밤에

김상호

여름산에 비가 말스니 희게나 비 내리는 것을 만히
지 않은 시내는 언덕에 흰뚝이 또 개진쳐 비
취 빛스니 더 긴 우나를 리 시냇가 구외의 이마에
가슴이 더 넓어지고 사그라져 버리는구나

여름산에 비가 말쑥히 개니 비단물을 저를 막지
않음 시내는 없네 칠패첩이 또 개진 치비취빛
푸른 잎 옥달리 시냇가 나뉘의이마에

가십년 가을 후사 선생 백일장에서 외딴 칠패첩을 차려

정길자

그윽한 초가는 고승한 천사와 같은
물은 기이한 잔해를 내네 나는 이제 진년
고하한 가을 거울도 없네 또 슬픈이마에

가십년 후사 선생 후보 회포장에 서동지장속

장

장유숙

여름산에 비가 말쑥히 개니 비단물을 저를 막지
시내는 없네 칠패첩이 또 개진 치비취빛 푸른
달리 시냇가 나뉘의이마에 가십년 후사 선생 회포

장

장영희

여름산에 비가 말쑥히 개니 비단물을 저를 막지
지안은 시내는 없네 칠패첩이 또 개진 치비취
빛 푸른이마에 달리 시냇가 나뉘의이마에

가십년 후사 선생 회포장에 서동지장속

장

이현옥

여름산에 비가 말쑥히 개니 비단물을 막지
은 시내는 없네 칠패첩이 또 개진 치비취빛 푸른
진유달리 시냇가 나뉘의이마에 이종규

장

이종규

[illegible]

서연황통전

황운선

그무한스나 무는고상한심비와 같고 흰구름이
온기미한자괴를내내나는이케진영을끌고
자하니즐거움도없고슬픔도없네

특사현생황산동리제공호년홍은로

홍은표

여름날에 비가 많아서 하다가 비나온 것을 막
지 많은 시내는 비가 많이 오고 개천이
척빛이 나고 물을 칠 시냇가나 외의 이마에

갑신년축사천생의시물쑥가온회귀시아

최루시아

여론상에 비가 많으니 비단옷을 잘 맵
지 않은 시내는 없네 창창이 또 개진치비촉
비옷 더 긴 옷 같을 리 시냇가 나 외의 이마에
이월사. 년가을 두사. 백가 밀알에서 동산로 회향

조미옥

여름산에비가.밀씩히개니비닐을걸말
지않은시내는없네.침침이포개진저비취
비웃구너귀달리시넷가나.외의이마에

추시선생후묘전국서예백미장애서남여실조미묵

10



강은이



공진옥



김남기



김동배



김여양



此畫可寄五百歲看到此梅
應復仙甲申金履賢

김은주



此畫可寄五百歲看到此梅
應復仙甲申金履賢

김재수



此畫可寄五百歲看到此梅
應復仙甲申金履賢

김조령



이 그림은 수명이 오백세가 될 만하니 이 그림으로 보아면
물론 다 신선이 되리라 천년 만년을 기대하리라

노영애



蘭生幽谷香遠益清者二江

박경빈



신미림



안승애



이미자



이종금



주명숙

入選



주월선

제15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서예백일장

발행인 : 예산문화원장 이 진 자
편집디자인 : 김찬민
펴낸곳 : 예산문화원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전화번호 : 041, 335, 2441
팩스 : 041, 334, 4330
<http://yesan.cult21.or.kr>

인쇄 : 2004년 11월 10일
발행 : 2004년 11월 12일

사진 : 탑스튜디오
인쇄 : 대성종합인쇄